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권세안(이목회) 김순녀 김한나 박순자(이동수) 배세영(이경순) 성미영(박영식) 송형기(김현숙) 유은자 이근자
이미자 전순봉 조규례 주경덕(이경자) 지옥분 채명엽(서시철) 최상걸(이미향) 허봉선 황상진(정선자) 황영욱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순녀 김지현(유소정) 김진희 김한나 박복례 박복순(김태준) 박부용(최귀남) 박성대 백경자(김창길) 송다혜
유은자 윤승환(민목회) 윤정호(유독자) 이경순(배세영) 이경자(주경덕) 이근자 이복현(지상건) 이옥남 전순봉
조규례 최성현(윤경자) 하세련 허봉선 홍유경 황경연(정선영)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김경열(손정아) 김병을(이영숙) 김정연B(강준식) 김종선(박영숙) 김중익(박애순) 김준화 박부용(최귀남)
박복순 배세영(이경순) 백성현(안지영) 송다혜 윤경자(최성현) 이경자(주경덕) 이미자 이일로(박현숙) 이종문
장성자 전순봉 정대석 정태원 채명엽(서시철) 허봉선 황영욱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성 김민혁 김준구 김지훈 김혜란 박민서 박서광 박승현 박준홍 박복순 배병찬 백경자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원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희 이설아 이소은 이송애 이옥남
정승현 정혜지 주성석 최귀남 최선미 황영욱 무 명

📍 **월정현금**
홍유정

주간 성경연구

50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읍기 33장 1절 ~ 13절		
월요일	읍기 33장 14절 ~ 33절	목요일	읍기 35장 1절 ~ 16절
화요일	읍기 34장 1절 ~ 20절	금요일	읍기 36장 1절 ~ 15절
수요일	읍기 34장 21절 ~ 37절	토요일	읍기 36장 16절 ~ 33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송슬기 김진희	
찬양대	지휘자	할렐 루아 : 김한나 시온 : 에덴 : 최원지 호 산 나 : 김안나 젤 : 이난수	
	바탕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선교사	솔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필 이성옥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옥희	이집트 : 김신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홍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늘행복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21. 12. 05.	발람의 길을 따르는 배도자	설교: 이진우 목사
베드로후서 2장 12-22절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자의 유언 형식으로 주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단자들에게 미혹되어 배도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과 이렇게 이단과 배도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본문 15절에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라고 말씀하며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라고 선언합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람닉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라는 뜻으로 모압 왕 발락의 영으로 복채를 가지고 찾아온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해 달라는 청을 받고 가다 당나귀의 입을 열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은 이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게 했던 자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도 자가 된 자들의 특징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멸망의 길로 가는 배도 자에 대해 바로 알고 무엇보다 스스로 탐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깨어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도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불의의 삯을 사랑합니다.
- 발람은 선지자였으나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를 범합니다.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을 자주함으로 해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선언하게 하심으로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의 책략을 따라 발락은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해서 음행을 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제사에 동참시키게 합니다. 발람의 계략대로 이스라엘이 범죄 했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려서서 2만 4천명이 영병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으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당함으로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 책망을 받습니까? 버가모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음행과 우상숭배가 벌어졌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깨어 있지 못해 우상 숭배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당시 니콜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바른 신앙을 왜곡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불의 삯,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 불의 삯, 자신의 유익을 따르며 세상과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2. 탐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 아담과 하와 또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과 욕망, 탐심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발람이 탐욕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편에 선 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짐승에게는 없는 이성과 영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거룩함과 의로움, 진실함과 선행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짐승과 같이 본능을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발람 선지자는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에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을 자주하러 갈 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나귀가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하려 할 때 발람은 나귀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나귀가 사람의 말로 발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탐욕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잃어버리고 이성과 영혼이 마비되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3. 결국 이러한 배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 성경은 처음부터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의 죄가 더 중함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므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또다시 범죄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속담에 비유합니다. 이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무서운 죄에 대한 영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배도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세상의 위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도를 굳게 잡고 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배, 즉 욕심과 욕망을 신으로 모시는 탐욕의 종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성도는 영생의 복을 소유한 자로서 모든 탐욕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여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세상의 탐욕으로 써어질 것 망할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더욱 풍성하게 이루시며 예비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7 - 50

2021. 12. 12.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도우소서” [역대하 14장 1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A garden fountain A well of living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12월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사회	기 도	기 도	기도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1주(5일)	배경철 장로	장윤주 집사	강영성 장로	배경철 장로			이명희 권사
2주(12일)	임만순 장로	김종진 집사	김병을 장로	임만순 장로			전순봉 권사
3주(19일)	박권제 장로	홍정훈 집사	최기훈 장로	박권제 장로			임영득 권사
4주(26일)	최성현 장로	유현호 집사	배경철 장로	최성현 장로			이경자 권사
예배안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